

가장 큰 명령

성경말씀: 막12:28-31

지난 20년간 근본주의 진영에서 생활함.

느낌: 교리가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독선이 강하다. 독침이라는 말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다니느라 고생이 심했다. 짜들었다. 그래서 인격이 피폐하게 된 분들이 많다. 정죄와 비난의 영에 사로잡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 듣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일까?

인정할 점: 근본주의 진영이 사랑하고 감싸 주고 이해하는 면이 부족하다. ★★★

지금까지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너무나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몇몇 목사의 잘못과 죄로 인해 희생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근본주의 진영은 나은가?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왕 잭 하일스, 하일스 앤더슨 칼리지, 잭 스캅, 두 명의 잭 왕 노릇, 독재, 설교가 아니라 웅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성적 부도덕의 만연 클라우드의 글은 단순한 신상 털기가 아니다.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을까? 그 목사나 그 교회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가? ★★★

무엇이 문제인가? 높아지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크게 키우려 하는 것: 독재 등 악한 방법 동원 이번 주 한 가정과 식사 교제: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변했습니다.”

왜 교회가 커지면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힘으로 높아지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크게 키우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 마음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공홀히 여기는 심정, 섬기려는 심정, 낮아지려는 심정이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더더욱 상한 심령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교리, 교회 성장, 봉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리가 올바르면 공홀히 여기는 심정이 생겨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바로 클 수 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박사들, 헤롯 당원들, 열심당원들

창녀, 세리, 어부

교회 이전 하면서 낙스의 소책자 ‘가장 큰 명령’을 읽고 설교할 것을 결심

배경

마가복음: 이방인 대상,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초점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 왕국 선포, 유대인들의 거절

거절에 앞서 12장에서 예수님의 시험: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다윗의 자손)

이 시험의 일부로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이 질문함.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613개의 명령(248개 긍정적인 것, 365개 부정적인 것). 가장 큰 것을 알고 싶어 함.

우리는 어떤가? 사람이 만든 명령들이 쌓여 있지 않은가? ★★★

명령

군대 용어, 상관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부담의 말, 많은 경우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개역성경에서는 계명으로 번역되어 불교 같은 종교의 계율과 같은 식으로 이해가 된다.

십계명, 열 가지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 간음, 살인, 예배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등 대부분의 교회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18-20절, 전도하는 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삼는다.

헌금, 십일조, 특별새벽기도, 교회 봉사 강조: 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신6:4-5)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레19:18)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근본적인 교회 중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스운 신화같이 되어 버렸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헌금, 주일성수, 십일조 많이 하는 사람 No, 중요하지만 근본정신이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은 구약을 요약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약 시대의 명령

1. 요13:34,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이다.
요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리, 헌금, 봉사 다 중요하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앞선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2. 롬13:8-10,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이전의 감리교회, 그 성도들과 목사님, 과거의 청교도 선진들
여러 가지 명령이 있으나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들어 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3. 갈5:13-16, 우리 교회에 자유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더러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쓴다(예배 참석 마음대로, 무질서).
자유는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자유를 잘못 쓰면 소멸된다.

사랑침례교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물론 사람이 교회이다.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큰 것이 다가 아니다. 질서 있게 사랑으로 해야 한다.

교회 모임: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놓고 공동의 보상을 얻기 위해 섬기는 곳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 목표가 확실한가? 여기에서도 핵심은 사랑(Charity)이다.

사랑침례교회: 사랑은 Love가 아니고 Charity이다. 궁핍히 여기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내가 한만큼 받으려는 사랑이다(육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희생하며 주는 사랑이다.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다.
의지적인 사랑이다.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 성도들의 증가

이 이면에는 예배 뒤에도 남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려는 성도들의 희생이 컸다. ★★★

쓰레기, 청소, 식사, 헌금 등의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 주신 분들의 희생이 컸다.

이제 장소가 더 커졌으므로 섬기는 일도 더 커졌다.

이제는 교리를 많이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행동으로 섬겨야 할 때이다.

마가복음 12장의 서기관처럼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 비유: 6, 9, 12, 3, 5시

마지막 결론(16절):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

새로 나오는 분들도 빠지 말고 내 교회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그 열심은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살피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잘 쳐야 한다.

결론

히10:23-25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모이기에 힘들다.

전화, 교회 사이트, 멀리서 오는 형제/자매들 역 부근에서 데려오기, 아픈 사람, 곤란 당하는 사람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사이트에 들어와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야 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행2:42-47을 이루어야 한다.

47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